

※ 이 콘텐츠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추억의 미림극장

---

인천 마을 산책



인천 유일의 실버 영화관인 미림극장은 동인천역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거리에 있다. 미림극장이 처음 문을 연 것은 1957년이다. 천막극장으로 시작한 영화관에서는 무성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렇게 50년 가량 영업을 하던 영화관은 2004년 ‘투 가이즈’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뻔했다. 2013년 이 공간을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후원으로 극장은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년째 그 공간을 지키고 있다.

인천 유일의 실버 영화관인 미림극장은 동인천역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거리에 있다. 영화 상영이 막 끝난 듯, 건물 앞으로 관객들 몇몇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절모의 잘 차려입은 할아버지 무리들부터, 젊은 시절 이곳에서 같이 영화를 봤던 추억이 있는 듯한 노년 커플들까지. 영화를 보고 나온 이들의 얼굴은 밝거나, 추억에 잠기거나, 아쉬움 가득한 제각기의 표정들이다.

미림극장이 처음 문을 연 것은 1957년이다. 천막극장으로 시작한 영화관에서는 무성영화가 상영되었다. 근처에는 현대 극장, 오성극장, 문화극장이 있어 이 미림극장과 함께 동인천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지역이 점차 구도심이 되어감에 따라 상권도 이동하고, 차츰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다. 이제는 미림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2004년 ‘투 가이즈’를 마지막으로 영화관은 기억의 뒤편길로 사라지려했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생겨남에 따라 작은 영화관이 차츰 문을 닫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순처럼 보였다. 그렇게 미림극장도 완전히 사라질 뻔 했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이 극장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2013년 이 공간을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후원을 받아 10월에 추억으로 사라질 뻔했던 극장이 재개관을 하게 된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영화관은 제2의 시작을 시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재개관 당시 힘을 실어주었던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극장은 다시 폐관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영리 단체인 인천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이곳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 그것을 발판으로 6년째 미림극장은 인천 유일의 실버극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280석에 단관이지만 하루에 150~200명의 어르신 관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한 편 보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에겐 그것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다.

극장의 변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이곳은 빈 공간을 이용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성 독립 영화, 제3세계 영화 등을 상영한다. 단지 한 편의 영화를 오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실버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진행했던 베트남 영화 상영에서는 한 노년의 관객이 자신의 인생에서 베트남은 가본 적도 의미도 없는 나라였지만, 영화를 보는 시간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한다. 그런 어르신들의 피드백은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더 고무시켰다. 뿐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르신들 중 시집을 내신 분도 있고, 영화를 만든 참여자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그런 일들에 힘입어 2019년에는 일본 요코하마의 '잭앤베티' 지역사회 극장과의 문화 교류도 진행하였다. 이들은 민간 영화 교류의 좋은 사례로써 미림극장에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올해 3월에는 일본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 기금을 받아 일본의 다른 지역영화관들과의 지역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미림극장의 노력은 추억과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오래된 극장이 아닌 여전히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극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정기후원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생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후원자가 7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곳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먼저 찾는 곳이 되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극장과의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영화를 사랑하는 노년의 할리우드 키드들의 현재와 기억을 잇는 극장이기도 하다.

## 집필자

---

백진영(시민기록가)

## 시대/연대

---

· 시대 : 현대-현대(1945.8.15~현재)

## 연관키워드

---

- [인천](#)
- [실버 영화관](#)
- [무성영화](#)

## 연관tag#

---

- [#인천시](#)

- #영화
- #극장

## 초등교과과정연계

· 3학년 ▶ 국어/사회

## 연관 이야기자료 (19)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연수문화원

#### 인천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축제 '연수 능허대문화축제'

능허대는 백제사신이 중국을 오가던 포구에 있던 언덕 이름이다. 능허대는 1990년 11월에 인천광역시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다. 연수 능허대문화축제는 2004년 10월에 시작된 백제문화 기반의 역사문화축제이다. 연수 능허대문화축제는 '백제사신퍼레이드, 연수구민의 날 기념식, 능허대 빅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전과 공연, 전시 및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지역명소축제

- #가을여행#가을축제

서울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308호

전화02-704-2322팩스02-704-2377

COPYRIGHT(c) 2018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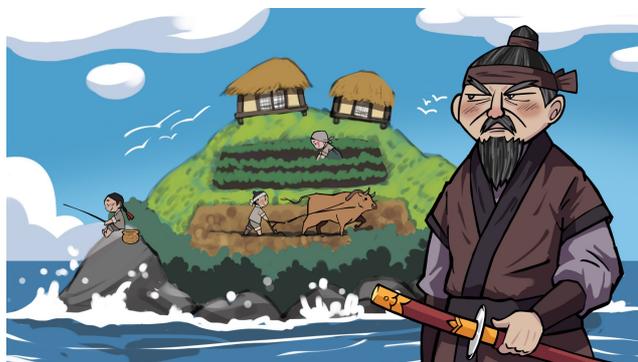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 연수구 연수문화원**

**국내외 유명 밴드를 만날 수 있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락 페스티벌, 펜타 유스 스타, 펜타 라이브 스테이지, 펜타포트 라이브 뮤직파티'로 구성되어 있다. 락 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스탠딩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원년 록 그룹과 인디밴드, 아이돌 그룹 등이 참가한다. 3일간 60여개의 팀이 무대에 오르며, 연간 10만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찾아온다. 영국 '타임아웃'이 4년 연속 '꼭 가봐야 할 세계 페스티벌50'에 선정하였다.

춤·음악 축제

- [#여름축제#여름여행](#)



**인천광역시 > 서구 인천서구문화원**

**의병장 조헌의 가족이 피난했던 인천 울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울도(栗島)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승병영규 등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후율(後栗) 조헌(趙憲, 1544~1592)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조헌은 이율곡을 좋아해서 후

율이란 호를 썼다고 하며,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몸종을 시켜 울도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가족과 몸종의 처가를 피신시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섬을 울도라 이름 지었다.

인천 지역의 지명유래

- [#역사적 인물#인천지명유래](#)